

모트렉스, 일본 최대 전장기업 알파인(Alpine)과 선진시장 진출

▶ 알파인 Alpine과 MOU 체결을 통한 선진시장 진출 본격화

[2018-07-11]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전문기업 모트렉스(대표이사 이형환)가 일본 전장기업 알파인(Alpine)과 선진시장 공략에 나선다.



<사진> 알파인과 MOU를 체결한 모트렉스(왼쪽부터 알파인 타츠야 사카이 부사장, 모트렉스 이형환 대표이사)

모트렉스는 11일 알파인(Alpine)과 MOU를 체결하고 모트렉스의 IVI(In-Vehicle Infotainment) 제품을 알파인(Alpine) 판매망을 통해 유럽, 미국, 호주, 아시아 등 글로벌 선진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파인은 자동차용 IVI 제품을 전문으로 생산, 공급하는 업체로 토요타, BMW, 아우디, 볼보 등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을 파트너로 두고 있으며, 2017년 2.5조 원(원화 기준)을 기록한 일본 최대의 자동차 전장기업이다. 알파인은 글로벌 사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트렉스의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이 기술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 하에 업무협약(MOU)을 맺게 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모트렉스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IVI(In-Vehicle Infotainment) 제품을 알파인의 판매망인 유럽, 미국, 호주, 아시아 등의 현지 차량에 적용될 예정이며, 온라인 마켓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트렉스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알리바바, 독일 컨티넨탈, 일본 알파인 등 글로벌 전장기업들과 협업은 선진시장으로 본격적인 진출 및 매출처 다변화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 계약

체결 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알파인과 RSE(Real Seat Entertainment), 첨단운전보조시스템(ADAS) 품목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 말했다.

모트렉스는 미래 자동차 시장의 핵심 부품으로 기대되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In-Vehicle Infotainment, IVI)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자동차 시장에서 핵심경쟁력을 어필하여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미래 확장범위가 넓어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 관계를 구축해 다방면에서 시너지 창출 및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